

보도시점 (전매체) 3.3.(화) 10:00

한성숙 장관, “싱가포르 거점으로 K-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확장 추진”

-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서 양국 AI·딥테크 스타트업 투자지원을 위해 ‘30년까지 3억달러 규모 글로벌모펀드(K-VCC) 조성 발표
- 현지 한인 금융 관계자, 진출기업 및 국내·외 투자자들과 각각 만나 양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방안 등 모색
- 싱가포르 기업청과 정책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과 연계해 1일(일)부터 2일(월)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싱 AI 커넥트 서밋’ 참석과 아울러, **현지 한인 금융관계자, 현지 진출기업인 및 국내외 투자자들을 만나 양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① 현지 한인 금융 관계자 간담회 (3.1(일))

한성숙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근무중인 국내 주요은행 지점장, 한국투자공사 이사장 및 현지 대형은행 한인 임직원을 만나 싱가포르 금융·투자 동향을 청취하고, 양국 벤처투자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한-싱 금융기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공동투자 기회 마련, 스타트업 동반진출 모델 발굴 등 양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지 한인 금융관계자 간담회>

- 일시 : ‘26.3.1(일) 11:30~13:00
- 주요참석 : 중기부 장관,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 정형동 신한은행 지점장, 양승용 우리은행 지점장, 박영민 하나은행 아시아지역본부장, 신현수 KIC 지사장, 손우철 DBS 실장, 김석현 OCBC PF부문장 등
- 논의사항 : 싱가포르 금융 투자동향, 양국 벤처투자 협력방안 등

②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 (3.2(월))

다음날, 한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AI 관련 기업인, 투자자, 연구자, 정부관계자 등 150여명이 모인 ‘**한-싱가포르 AI 커넥트서밋**’에 참석하여 글로벌 AI 시장 선도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서밋 첫 번째 세션인 ‘투자’ 세션에서, **싱가포르에 ‘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 글로벌모펀드(K-VCC)를 조성**하여 양국 AI·딥테크 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글로벌펀드를 통해 싱가포르와 아세안 지역에 18억달러 규모, 19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싱가포르에 글로벌모펀드(K-VCC)를 조성하여 한국투자유치와 양국 유망 AI 스타트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③ 현지 진출 기업인·전문가 간담회 (3.2(월))

현지 진출 스타트업 3개사, 구글,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 전문가 등과 만나 싱가포르 스타트업 생태계의 최신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제 발굴의 시간을 가졌다.

<현지 진출 기업인·전문가 간담회>

- 일시 : ‘26.3.2(월) 12:00~13:00
- 주요참석 : 중기부 장관, 경제성장수석, 중기비서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KOSA) 조준희 회장, 이상현 구글 총괄이사, 박진서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상무, 한정필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박서영 변호사, 엘리스그룹 김재원 대표, 문지명 (주)인절미 대표, 김한근 씨드로닉스(주) CTO, 유현수 피아스페이스(주) 대표
- 논의사항 : 싱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글로벌 창업 활성화 논의 등

④ 국내·외 벤처캐피탈 간담회 (3.2(월))

한 장관은 싱가포르 및 아세안 지역 벤처캐피탈(VC)과 만남에서 한국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투자사 Vertex 등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VC가 참석하였다.

해외 VC들은 한국 스타트업 투자 사례를 공유하며 투자 협력의 성공모델을 소개하였고, 중기부는 글로벌 모펀드(K-VCC)를 소개하며 참석한 VC들에게 펀드참여 및 투자협력방안을 설명하였다.

한성숙 장관은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허브로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관문이자 파트너”라며,

“양국간 벤처·스타트업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원활히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진출 기업인·전문가 간담회>

- 일시 : '26.3.2(월) 18:30~20:30
- 주요참석 : 중기부 장관,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털협회장,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김종현(한국투자파트너스 법인장), 현지훈(우리벤처파트너스 상무), Hock Chuan Tam(싱가포르 Vertex 임원), Ali Fancy(싱가포르 Cento Ventures 대표), Vicknesh Pillay(싱가포르 TNB Aura 대표), Vy Le(베트남 Do Ventures 대표), Chandra Tjan(인도네시아 Alpha JWC Ventures 대표),
- 논의사항 : 한국 스타트업 투자사례 및 협력방안, 글로벌모펀드(K-VCC) 등

담당 부서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김석동 (044-204-7714)
		담당자	주무관	김준석 (044-204-7732)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	책임자	과장(代)	박승호 (044-204-7550)
담당자		사무관	안진주 (044-204-7558)	

⑤ 싱가포르기업청(회장 Lee Chuan Teck)과 양자면담 (3.2(월))

이번 면담에서는 지난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25.9.)’에서 한국 주도로 발족을 공식화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이를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해 싱가포르와의 역내 스타트업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싱가포르기업청 회장 면담 개요 】

- (일시 / 장소) '26.3.2.(월) 09:00(현지시각) / 싱가포르기업청 회의실
- (참석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장(代) 등
싱가포르 싱가포르기업청 회장, 미주유럽·동북아 및 오세아니아 담당 부서장 등

또한, 양 기관은 AI 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한국측은 OpenData X AI 챗린지, 딥테크 챗린지 프로젝트(DCP) 등 주요 AI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싱가포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 개요

-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24.10월) 후속으로 해외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위한 싱가포르 K-글로벌 모펀드(K-VCC) 추진
- (펀드규모) '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 조성 목표

< 싱가포르 VCC 제도 개요 >

- (개념)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에서 운영하는 전환형 펀드 제도로, 내부에 독립적인 펀드를 운영 가능 ('20년부터 시행)
- (특징) 싱가포르 현지 전문인력 및 법인설립, 현지 증권선물법 적용 등 설립요건이 엄격하나 세계혜택* 및 자유로운 자금 운용 가능
 - * 펀드투자 이익, 배당금 등 세금면제
- 외국인에게도 100%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면서, 다양한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하여 글로벌 투자금이 싱가포르로 대량 유입중
- (현황) 현지 500개 이상 운용사가 1,000개 이상 VCC 운영 ('24년 기준)

□ 활용방안

- 한국벤처투자가 K-VCC를 설립, 하위 펀드를 국내VC에게 위탁하는 구조를 통해 국내VC의 역외펀드 설립 부담을 대폭 완화
- K-VCC의 하위펀드는 국내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역외펀드 및 국내 벤처펀드 출자목적의 재간접펀드 등으로 구성

< K-글로벌모펀드(K-VCC) 구조도 >

